

보를 얻지. 경제활동을 하는 55세 이하의 사람들이 많고 상하나 중상의 소득수준으로, 소비자의 34%를 구성해.

후기다수층(Late Majority)은 대중의 흐름에 뒤처지면 안 되겠다 싶을 때 비로소 움직여. TV를 온종일 틀어놓는 사람들이랄까, 대중매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지. 트렌드는 수용하되 마지못해 하는 편이고, 다양한 사회적 압력에 순응하며 사는 사람들이야. 중상이나 중중의 소득수준으로 45세 이상이며 점차 은퇴기로 가는 이들이 많아. 대표적인 보수층(conservative)으로 시장을 오래 존속시키는 역할을 하고 약 34% 정도를 차지해.